

‘개막 2연승’ 광주FC, 아시아 무대 돌풍 이어질까

오늘 말레이시아 조호르와 격돌
잔디 여파로 대체 구장 용인 개최
‘해결사’ 아사니 활약 여부 주목
초호화 외인 군단…자본 힘 변수



창단 처음으로 도전하는 아시아 무대에서 개막 2연승을 달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FC가 일본을 넘어 말레이시아에도 위력을 떨칠지 주목된다. 막강한 머니 파워로 초호화 군단을 구성한 조호르 다를 타짐 FC를 상대로 연승 가도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오는 22일 오후 7시 경기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조호르와 2024-2025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3차전을 치른다.

이번 경기는 당초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17일 요코하마 F. 마리노스와 1차전 당시 정상적인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잔디 상태로 인해 AFC로부터 대체 구장 지정을 요구받으며 장소를 옮기게 됐다.

광주는 개막 2연승을 달리며 승점 6점을 확보, 선두를 질주 중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고, 12개 팀 중 상위 8개 팀에 16강 티켓이 주어지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승



광주FC가 22일 오후 7시 경기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조호르 다를 타짐 FC와 2024-20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3차전을 치른다. 광주FC 변준수가 지난 18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대구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34라운드 홈경기에서 선제골을 터트린 뒤 포효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리를 챙긴다면 남은 일정을 편안하게 치를 수 있다.

믿을 만한 자시르 아사니다. 지난해 알바니아 국가대표로 데뷔한 아사니는 UEFA(유럽축구연맹) 유로 2024 예선에서 폴란드를 상대로 선제골 겸 결승골을 터트리는 등 큰 무대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주축으로 우뚝 섰다.

아시아 무대에서도 요코하마를 상대로 헤트트릭과 1어시스트, 가와사키에는 페널티킥으로 선제골 겸 결승골을 터트리는 등 맹활약을 펼쳤고 ACLE 득점 순위 단독 선두에 올라 있다.

아사니의 뒤를 받쳐야 하는 정호연과 박대준, 오후성, 이강현 등 미들 자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빅토르 가브리엘 티그

랑이 시즌 아웃되며 외인 라인업의 무게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아사니에게 집중될 견제를 분산하는 동시에 공격 기회 창출에도 기여해야 한다.

후방에서는 김경재와 변준수의 조합이 주목된다. 이정호 감독은 요코하마와 1차전, 가와사키와 2차전에서 모두 중앙에 김경재와 변준수를 조합하며 체력 안배와

수비 안정화를 동시에 꾀했다. 변준수의 경우 ACLE 직후 치러지는 리그 인천유나이티드전에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기 때문에 모든 체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상황이다.

말레이시아 슈퍼 리그 10연패를 달성하는 등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조호르는 ACLE 개편 전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회 연속 본선 진출에 성공했고 가시마 앤틀러스와 수원삼성블루윙즈, 울산 HD FC를 꺾는 등 고춧가루 부대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올해는 외국인 선수 활용에 제한이 없는 ACLE 규정을 활용, 공격적인 투자로 상위권까지 넘보는 중이다. 지난 1일 상하이 선화와 2차전에서는 말레이시아 간판 스타인 아리프 아이만을 제외하고 선발 라인업 10명이 모두 외국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교체로 투입한 네 명도 호주 출신의 귀화 선수인 매튜 데이비스를 제외하고 모두 외국인으로 꾸리며 막강한 선수 구성을 이뤘고, 3-0 대승을 거두며 1승 1무(승점 4·득실 +3)로 2위에 올라 광주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최근에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후계자로 꼽혔던 헤세 로드리게스까지 영입하며 공격에 힘을 더했다. 레알 마드리드 CF와 파리 생제르맹 FC, UD 라스팔마스 등 화려한 경력을 지닌 헤세는 조호르에서 첫 출격을 준비 중이다. **한규빈 기자**



한국배구연맹이 21일 오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2024-2025 KOVO 남자 신인선수 드래프트를 개최한 가운데 지명을 받은 21명의 선수들이 새로운 출발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광주·전남서 V-리거 4명 탄생

순천제일고 배준솔·조선대 진욱재
광주전자공고 출신 조승연·선홍웅

광주·전남 지역에서 4명의 V-리거가 탄생했다. 대졸 신인 3명과 고졸 신인 1명이 도드람 2024-2025 V-리그 남자부에서 프로 데뷔라는 새로운 목표를 꿈꾸게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1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2024-2025 KOVO(한국배구연맹) 남자 신인선수 드래프트를 개최했다. 이날 드래프트에는 대학교 졸업 예정자 33명과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4명, 대학교 1~3학년 재학생 11명 등 총 48명의 선수가 도전장을 냈다.

이번 드래프트 지명 순서는 지난 시즌 최종 순위의 역순으로 KB손해보험이 35%, 삼성화재가 30%, 한국전력이 20%, 현대캐피탈이 8%, 우리카드가 4%, OK저축은행이 2%, 대한항공이 1%의 확률을 갖고 추첨을 통해 결정됐다.

다만 트레이드에 따라 대한항공이 OK저축은행과 삼성화재의 몫까지 세 장, 현대캐피탈이 우리카드의 몫까지 두 장의 1

라운드 지명권을 보유하고 추첨에 따라 대한항공이 1순위(OK저축은행)와 2순위(삼성화재), 7순위, 한국전력이 3순위, KB손해보험이 4순위, 현대캐피탈이 5순위와 6순위(우리카드), 대한항공이 7순위를 가졌다.

토미 킬리카이넨 대한항공 감독은 전체 1순위로 천안고 세터 김관우를 지명했다. 남자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고등학교 생이 전체 1순위 지명을 받은 것은 김관우가 최초의 사례다. 또 대한항공은 김관우에 이어 인하대 마들 블로커 최준혁을 선발하며 최대어 두 명을 모두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순천제일고 세터 배준솔이 2라운드 3순위(전체 10순위)로 현대캐피탈 유니폼을 입고, 조선대 진욱재가 2라운드 7순위(전체 14순위)로 OK저축은행에 발탁됐다.

광주전자공고 출신인 성균관대 세터 조승연과 홍익대 아웃사이드 히터 선홍웅은 각각 3라운드 1순위(전체 15순위)와 4라운드 4순위(전체 19순위)로 OK저축은행과 KB손해보험에 선발됐다. **한규빈 기자**



광양여고 여자축구 선수단이 지난 16일 경남 함안스포츠타운꽃감구장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여자18세이하부 축구 결승전에서 울산 현대고를 3-0으로 완파하고 우승을 차지한 뒤 금메달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 학생 선수단, 제105회 전국체전서 값진 결실

42개 종목에 471명 출전
금 15·은 19·동 27개 수확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남 학생선수단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뜻깊은 결실을 얻었다.

2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17일 경남 일원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남 학생선수단이 금메달 15개, 은메달 19개, 동메달 27개 등 총 61개의 값진 메달을 획득하며 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에는 42종목에 총 471명의 고등학교 학생 선수가 출전했고, 전남 학생선수단은 특히 육상, 댄스스포츠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3관왕 1명과 2관왕 3명을 배출했다.

특히 육상과 레슬링이 효자종목으로 눈

부신 성과를 거두며 각각 금 6개, 은 2개, 동 4개와 금 2개, 은 3개, 동 5개를 수확했다.

전남체육고등학교의 레슬링 종목 배우원은 2학년까지 특별한 전국대회 성적이 없었으나 꾸준한 노력 끝에 올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배우원은 전남체고 학생회장으로서 ‘반값 매점’, ‘교내 워터파크 개장’ 등 다양한 학생 자치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단체종목에서도 전남의 전통 강호들이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 광양여고는 축구 종목에서 지난해에 이어 금메달을 획득해 전국체전 2연패를 달성했다. 여고부 배구 종목은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가 ‘2024-2025 KOVO 신인 여자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 지명 김다은(한국도로공사배구단), 1라운드 3순위 지명 이주아

(GS칼텍스)를 앞세워 팀을 준우승으로 이끌며 학생 진로 개척과 전국체육대회 은메달 획득이라는 겹경사를 맞이했다.

오랜만에 고등부에서 메달 소식을 전한 종목도 있었다. 여고 포환던지기에서 독서로 내용을 다져온 문혜솔이 금메달을 차지했고, 목포공업고의 정대현은 혼련장이 없어 주말마다 왕복 2시간 거리의 순전을 오가며 운동한 결과, 우수 남자 종목에서 동메달을 따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박재현 전남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471명의 모든 학생이 빛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기력 향상과 더불어 학생 선수 진로 개척,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등 선진화된 운동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